

텍스투스 레킵투스와 신약성서 번역: 복음서를 중심으로

장동수*

1. 서론

성경 번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번역 대본이 되는 저본(底本)이다. KJV(1611년)는 훌륭한 번역이었고 수백 년 동안 신학, 문학, 예술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저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 저본이 바로 흔히 약자로 TR이라 부르는 소위 텍스투스 레킵투스(Textus Receptus)이다.¹⁾ TR은 어느 특정한 사본도 아니고 특정한 본문 유형이라고도 볼 수는 없으나, 소위 비잔틴 본문(Byzantine Text) 혹은 다수 본문(Majority Text)과²⁾ 같은 흐름 속에 있다. 크게 보면 TR이나 비잔틴 본문이나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 보면 약 1,500군데 이상이 다르다.³⁾

TR이 KJV의 저본이 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첫째로, 가장 큰 문제점은 TR이 소수의 신뢰가 덜 가는 후기 사본들에 기초한 본문이었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본문 학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TR을 극복할 수 있는 비평 본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TR에 기초한 번역인 KJV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RSV를 위시하여 수많은 번역 성경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온전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구미 학계에서 TR은 다수 본문을 주장하는 이들과 더불어 KJV로 복귀하고자 하는 이들의 거의 맹신적인 움직임이 생겨나게 하였다. 그 영향은 한국 교계에도 미쳐서 KJV 지상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로, 첫 번째 문제점 때문에 야기된 것인데, 1550년에 TR의 후속 편집자였

* 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1) TR의 발흥과 미친 영향, 그리고 TR의 극복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91-103;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23* 등을 보라.

2) Byzantine Text는 the Syrian text, the Koine text, the Ecclesiastical text, the Antiochian text, 그리고 Majority text로 불리기도 한다: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23*을 보라.

3) Ibid., 26*

던 로버트 스테파누스(R. Stephanus)가 매긴 절 표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KJV를 필두로 오늘날 모든 번역 성경이 TR에 매겨졌던 스테파누스의 절(verse)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 없음”이라는 표시가 번역 성서에 많이 생기게 되었다. 초기에 TR을 극복하고자 하는 본문학자들에게도 늘 TR이 비교 기준에 있었고, 본문 비교 작업(collation)을 비롯한 모든 본문비평 작업의 기초를 TR로 삼고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흔한 예로 국제 그리스어 신약 프로젝트(IGNTP, International Greek New Testament Project)의 비교 본문이 TR인 점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동방교회 신약성서도 이 절 체제를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TR이나 다수 본문 전승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

TR에 대한 옹호는 버곤(J. W. Burgon, 1813-88), 스크리비너(F. H. A. Scrivener)와 밀러(E. Miller) 등에 의하여 계속되었는데, 그들과 계승자들(E. H. Hills, W. N. Pickering, Z. Hodges, A. Farstad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격은 다음과 같다.⁴⁾ 이것은 미국 내에 소수로 존재하는 다수 본문 협회(Majority Text Society)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한국의 제임스왕역 복귀 운동과도 흡사하다. 첫째로, TR 옹호자들의 주장은 교회가 1,500년 동안 전통적인 본문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부패한 본문을 교회가 따르도록 하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TR의 완전성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비평학자들이 TR이 나쁘거나 이단의 본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또한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떤 성서도 완전히 동일한 성서가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로, TR 옹호자들의 주장은, 소수의 초기 사본들의 증거를 선호하여 수백 개의 후기 사본들의 증거들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 문헌의 본문비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더 오래되고 믿을 만한 증거사본이

4) 비잔틴 계열 본문유형을 변호하는 주장과 상황에 대하여는, H. A. Sturz, *The Byzantine Text Type an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Z. C. Hodges and A. L. Farstad,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Nashville: Thomas Nelson, 1992); D. B. Wallace, “The Majority Text Theory: History, Method, and Critique,” B. D. Ehrman and M. W. Holmes, e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Essays on the Status Quaestionis* (Grand Rapids: Eerdmans, 1995): 297-320; J. van Bruggen, “The Majority Text: Why not Reconsider its Exile?” S. McKendrick and O. O’Sullivan, eds., *The Bible as Book: the Transmission of the Greek Text* (London: British Library, 2003), 147-52 등을 보라. 또한 이에 맞서서 이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글들도 참조하라: G. D. Fee, “The Majority Text and the Original Text of the New Testament,” E. J. Epp and G. D. Fee, eds.,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93), 183-208; B. Aland and K. Wachtel, “The Greek Minuscule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B. D. Ehrman and M. W. Holme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Grand Rapids: Eerdmans, 1995), 43-60; 박창환,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정체,” 『성경원문연구』 1 (1997년 8월), 11-33.

후기 사본들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사본은 수효가 아니라 무게로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로, 전통 본문이 실상은 더 오래되고 내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TR 옹호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비잔틴 본문유형의 원조가 될 수 있는 오래된 사본이 한두 개 있을 수는 있으나 전통 본문이 더 오래된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전통 본문이 내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은 아주 주관적인 견해이다. 본문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일반적으로 후기 본문이 열등할지언정 우월하지는 않다.

구역 신약전서(1911년)의 저본은 RV의 저본이었던 그리스어 본문과 텍스트스 레킵투스였고 개역 신약전서(1938년)의 저본은 1923년판(14판) 네스틀레(Nestle)의 본문이었지만,⁵⁾ 한글 번역 성서들이 TR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본 논문은 한글의 대표적인 번역 성경인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개정』 등에 아직도 TR이 미친 영향이 있는지를 사복음서에서 뽑아낸 실증적인 예들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현대의 신약성서 번역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번역 성서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TR이나 KJV의 흔적들은 주로 첨가나 “절 없음” 그리고 다른 의미의 번역 등이다. 다음에 이러한 세 분야의 대표적인 본문들을 다루었다.

2.1. 절 없음

한국의 대표적인 번역 성서들인,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개정』에는 마태복음 17:21; 18:11; 23:14에서 본문에 “(없음)” 표시만 있고 그 내용이 없다. 그러나 TR과 KJV에는 이 구절들이 본문에 있다.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개정』에는 마태복음 17:21이 본문에 없다. 『공동개정』에는 아예 절 표시까지도 없다. 그리고 세 번역판 모두의 각주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나 이와 유사한 번역문이 있다. 그러나 KJV의 번역자들은 저본인 TR의 본문,⁶⁾ “τοῦτο δὲ τὸ γένος

5)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II: 번역 반포와 권서 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71.

6) 본 논문에 인용되는 TR의 본문은 *H KAINH ΔΙΑΘΗΚΗ*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1985)를 따른 것으로, BibleWorks 5(2001)판의 Stephanus(Robert Etienne's)(1550)NT를 사용하였고, 기타 WHO(Westcott and Hort NT), Tischendorf 8판(1872) 등도 BibleWorks의 본문을 사

οὐκ ἐκπορεύεται εἰ μὴ ἐν προσευχῇ καὶ νηστείᾳ.”을 따라 “Howbeit this kind goeth not out but by prayer and fasting.”으로 번역하여 본문에 두고 있다. 광범위한 증거들에서 이 구절이 없다. 후대의 필사자들이 마가복음 9:29의 평행구절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⁷⁾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TR 이후의 모든 번역 성서는 TR에 매겨진 절 체계를 따랐기 때문에, 본문 안에 마태복음 17:21에 “21 (없음)”과 같은 표시를 두게 된 것이다.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에도 이 구절이 유지되고 있으나, 웨스트콧 호트(Westcott and Hort, WHO)와 그리스어 신약전서(Greek New Testament, GNT)에는 이 구절이 없다. 한글 대표 번역본들이 이곳에서 본문의 측면에서는 TR과 KJV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는 있으나, 절 체계는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마태복음 18:11과 23:24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대표적인 한글 번역본들에서 대동소이하다.

2.2. 어구 첨가

한글 번역 성서들과 TR이나 KJV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에서 짧은 어구들이 첨가 혹은 생략된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여기에서는 여섯 군데를 살펴보았다.

1) 마태복음 3:16

『개역개정』에는 마태복음 3:16 중반의 “하늘이 열리고”라는 본문 앞에 각주를 달아 “어떤 사본에, 자기에게 열리고”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TR의 본문은 ἀνεώχθη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이고, 이를 번역한 KJV는 the heavens were opened unto him이다. 『표준개정』과 『공동개정』에는 이 부분에 아예 『개역개정』 같은 각주도 없다. 본문 안에 대명사 αὐτῷ가 있음으로 하늘의 환상이 예수께만 보였다거나 혹은 그 환상은 예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할 수 있어서 원문이었다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탈락되었을 수도 있다.⁸⁾ TR과 같이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은 이 단어를 유지하고 있으나, WHO와 티센도르프 8판에는 없다. GNT (ἠνεώχθησαν [αὐτῷ] οἱ οὐρανοί)의 편집자들은 초기 중요한 증거 사본들에는 이 어휘 αὐτῷ가 없으나 필사자들이 불필요하다고 여겨 생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용하였다.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은 각각 Z. C. Hodges and A. L. Farstad,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와 *H KAINH ΔΙΑΘΗΚΗ (ΑΘΗΝΑΙ: ΑΔΕΛΦΟΤΗΣ ΘΕΟΛΟΓΩΝ Ο ΣΩΤΗΡ, 2004)*을 사용하였다.

7) 브루스 M.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장동수 역, 제 2 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34를 보라.

8)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4; D. A. Hagner, *Matthew 1-13*, WBC (Dallas: Word Books, 1993), 54 등을 보라.

할 수 없어서 이 어휘를 꺾쇠괄호에 넣고 있다.)⁹⁾ 여기에서 저본인 GNT의 영향을 받은 점도 있겠으나, 『개역개정』의 각주만을 예외로 본다면 한글 번역 성서들에 는 TR이나 KJV의 영향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2) 마태복음 6:13

주기도문에 송영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의 장소인 마태복음 6:13의 말미에 사본들에 다음과 같은 이문들이 나온다.

- (1) ποιηροῦ. + 아무 것도 첨가되지 않음: **⋈ B D Z 0170 f¹ 205 1547** 대
부분의 라틴어 번역본과 곱트어 역본, 교부들의 글
- (2) ποιηροῦ. + ἀμην. (“아멘.”): 17 vg^{cl} 제롬^{1/6}
- (3) ποιηροῦ. + ὅτι σοῦ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καὶ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 εἰς
τούς αἰῶνας (τῶν αἰώνων) ἀμην.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L W Δ Θ Ψ Byz Lect 등
- (4) ποιηροῦ. + ὅτι σοῦ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καὶ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εἰς τούς αἰῶνας ἀμην. (“아버
지와 아들과 성령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
니다; 아멘.”): 157(1253 καὶ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가 생략됨)

이문 (3)이 TR의 본문이었기 때문에 KJV의 번역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 ever. Amen.” 『개역개정』
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번역하여 괄호를 사용하여 본문에 두면서, 각주에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언급한다. 『표준개정』의 번역자들은 “나라와 권세
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번역하면서,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지만 교회에서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온 본문임”을 표시하는 겹
괄호 속에 두고 있다. 『공동개정』도 비슷하게 번역하면서 본문에 위치하되 괄호
속에 있고, 각주에, “후대의 사본들에만 이 말이 들어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영
어의 번역본들은 RSV/NRS를 위시하여 NIV와 NJB 등 거의 대부분이 아예 이
구절이 본문에 없다.

그러면 위에 제시된 대로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자. 이문 (1)에서 보듯이, 알
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B**)과 서방 본문 계열(D)의 중요한 초기 증거사본들과,
소문자 사본(f¹)과, 번역본들 및 교부들(오리겐, 터툴리안, 키프리안)의 인용문에는
이 송영이 없다. 그리고 이문 (2)와 이문 (4)는 모두 외적인 지지가 아주 약하다.
가장 대중적인 송영 삽입구를 포함하는 이문 (3)은 꽤 많은 사본증거들의 지

9)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9를 보라.

지를 받고 있으나, 후기 사본들이다. 외적인 증거만으로도 주기도문의 송영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없었던 것인데, 후대에 필사자들에 의하여 첨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문 (3)과 흡사한 송영은 『디다케』 8장에 “ἡ βασιλεία”(나라와)가 빠진 “ὅτι σοῦ ἐστὶν ἡ δύναμις καὶ ἡ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로 나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송영의 형태가 소개된 것은 약 100년경으로 추정된다.¹⁰⁾ 삼위 하나님이 더 첨가된 이문 (4)와 같은 송영은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이 역대상 29:11-13에 기초하여 성구집에 사용한 때부터라고 본다.¹¹⁾ 번역자들은 이 송영이, 신약성서의 본문이 전달되는 과정에, 교회의 필요를 따라 첨가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여기서 영어 번역본들은 일찍이 TR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한글 번역본들은 아직 완전하게 TR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마태복음 18:15

마태복음 18:15 전반부에서 TR(Ἐὰν δὲ ἁμαρτήσῃ εἰς σὲ ὁ ἀδελφός σου)을 따라 KJV에는 “Moreover if thy brother shall trespass against thee,”라는 번역이 실려 있다.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은 TR과 함께 이 밑줄 친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GNT(Ἐὰν δὲ ἁμαρτήσῃ [εἰς σὲ] ὁ ἀδελφός σου,)에서는 괄호 속에 두고 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자들은 이 어구를 번역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주에 “어떤 사본에, 네게 죄를”이라는 언급을 한다. 그러나 『표준개정』의 번역자들은 이 어구를 본문에 두되 괄호 속에 두고 있으며, 『공동개정』의 번역자들은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된 일이 있거든...”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어구를 반영한 듯 보인다.

4) 마태복음 19:29

TR(…ἀδελφούς ἢ ἀδελφὰς ἢ πατέρα ἢ μητέρα ἢ γυναῖκά ἢ τέκνα…)에는 마태복음 19:29 중반에 “어머니나”(ἢ μητέρα) 다음에 “아내나”(ἢ γυναῖκα)가 첨가되어 있고, 이에 따라 KJV도 이 부분이 …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으로 번역되었다. GNT(…ἀδελφούς ἢ ἀδελφὰς ἢ πατέρα ἢ μητέρα ἢ τέκνα…)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어머니나”라는 어구가 없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본문(“…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에는 이 단어가 없고, 각

10)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왜관: 분도출판사, 2003), 62-63; M. W. Holmes, ed., *The Apostolic Fathers*, J. B. Lightfoot and J. R. Harmer, tran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258 등을 보라.

11)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4를 보라.

주에 언급될 뿐이다. 이 부분에서 TR은 다수 사본의 전승과 일치하고 동방교회의 신약성서와 동일한데, 한글 성서들에는 이 구절에서 TR이나 KJV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가복음 10:29가 이 마태복음 19:29의 예와 동일하다.

5) 마태복음 27:35

KJV에는 마태복음 27:35 후반부에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the prophet, They parted my garments among them, and upon my vesture did they cast lots.”가 나오는데, 이는 물론 TR에 실려 있는 “ἵνα πληρωθῆ τὸ ῥηθὲν ὑπὸ τοῦ προφήτου, διμερίσαντο τὰ ἱμάτια μου ἑαυτοῖς, καὶ ἐπὶ τὸν ἱματισμόν μου ἔβαλον κλῆρον”이 번역된 것이다. 『개역개정』은 『공동개정』 및 『표준개정』과 함께 이 부분을 번역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일치를 이루고 있다. TR에 이 구절이 들어 있는 것이 원래 원문이었는데 동일말미 현상(중간의 κλῆρον과 끝의 κλῆρον)에 의하여 생략되었다는 설명보다는, 알렉산드리아와 서방 본문 유형의 초기증거들(⋈ A B D W 등의 대문자사본들과 라틴, 시리아 번역본들)에 이 구절이 없었는데 요한복음 19:24의 평행구절과 마태복음의 통상적인 인용형식(fulfillment formulae)인 ἵνα πληρωθῆ τὸ ῥηθὲν ὑπὸ τοῦ προφήτου의 영향을 받은 후대 삽입구로 보는 GNT⁴의 편집자들의 판단이 더 설득력이 있다.¹²⁾ 동방교회 전통 본문에도 이 부분은 없고, 다수 본문 편집자들도 본문에 이 부분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본문과 TR을 구별하고 있다.¹³⁾ 이 구절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번역본들이 TR의 영향을 극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6) 마태복음 28:20

TR에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Ἀμήν”이 있어서 KJV도 “Amen”을 두고 있으나, GNT를 따라간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개정』에는 없다. 다만 『표준개정』에는 각주에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이라는 언급이 있다.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은 물론 이 지점에서 TR과 동일한 본문을 유지하고 있다.

2.3. 상이한 어구 혹은 번역

마태복음에서 한글 번역 성서들과 KJV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번역어구나 각

12)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55를 보라.

13) Z. C. Hodges and A. L. Farstad,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98의 본문비평장치를 참고하라.

각의 저본인 TR과 GNT의 본문 사이에 상이한 어구가 포함되어 있는 흥미로운 구절들이 꽤 있다. 다음의 다섯 구절에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⁴⁾

1) 마태복음 8:10

마태복음 8:10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저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TR은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οὐδὲ ἐν τῷ Ἰσραὴλ τοσαύτην πίστιν εὗρον”이고 KJV는 “Verily I say unto you, I have not found so great faith, no, not in Israel.”으로, GNT는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παρ’ οὐδενὶ τοσαύτην πίστιν ἐν τῷ Ἰσραὴλ εὗρον.”이지만 RSV는 “Truly, I say to you, not even in Israel have I found such faith.”이고 NRS는 “Truly I tell you, in no one in Israel have I found such faith”이라서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고 다른 저본을 번역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TR의 본문은 의심할 여지없이 누가복음 7:9(οὐδὲ ἐν τῷ Ἰσραὴλ τοσαύτην πίστιν εὗρον: 여기서 TR과 GNT의 본문이 동일하다)의 평행구절에 동화된 것인데, GNT의 본문보다 더 쉽고 명백하다.¹⁵⁾ 이 부분에서 흥미롭게도 Tischendorf 8판의 본문은 TR과 같고 WHO의 본문은 GNT와 같다. 이 어구에 대한 한글 번역들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개역개정』)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표준개정』)로서 거의 동일하고,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공동개정』)는 GNT의 강조점을 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각주에는 “어떤 사본에, 이스라엘 중에서라도”라고 언급함으로써 번역자들이 이 두 저본(혹은 이문)간에서 갈등을 느꼈던 흔적이 보인다.

2) 마태복음 11:19

마태복음 11:19의 마지막 부분에서 TR(καὶ ἐδικαιώθη ἡ σοφία ἀπὸ τῶν τέκνων αὐτῆς)을 따라 KJV는 “But wisdom is justified of her children.”으로 번역되어 지혜가 의인화되었다. 그러나 『개역개정』이나 『표준개정』의 번역자들은 WHO와 Tischendorf 8판의 본문과 동일한 GNT(καὶ ἐδικαιώθη ἡ σοφία ἀπὸ τῶν ἔργων αὐτῆς)를 따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혹은 이와 흡사하게 번역하면서, 각주에 “어떤 사본에, 혹은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자녀들로’”라고 언급한다. 『공동개정』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결과로 알 수 있다.”라고 번역함으로써 함축적이지만 다른 한글 번역 성서들과 맥을 같이 한다.

14) 여섯 번째 예가 될 수 있는 마태복음 16:7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8:16의 논의 참조.

15)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7;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1 등을 보라.

TR이 지니고 있는 이문, τέκνων은 필사자가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7:35에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¹⁶⁾ 누가복음 7:35에만 나오는 πάντων까지도 포함하는 이문들도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동화현상을 암시해준다.¹⁷⁾ 이 구절에서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글 번역 성서들의 본문에는 TR이나 KJV의 흔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마태복음 21:28-31

마태복음 21:28-31에서 『개역개정』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동일한 구절에서 KJV는 “But what think ye? A certain man had two sons; and he came to the first, and said, Son, go work to day in my vineyard. He answered and said,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And he came to the second, and said likewise. And he answered and said, I go, sir: and went not. Whether of them twain did the will of his father? They say unto him, The first. Jesus saith unto them, Verily I say unto you, That the publicans and the harlots go into the kingdom of God before you.”로 되어 있어 두 번역본간의 차이점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경우가 서로 바뀌어 있는 점이다.

KJV는 TR을 따르고 있으나, 『개역개정』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개정』, 『표준개정』, RSV, NIV 등은 TR을 따라 번역된 KJV와 동일하다는 데 있다. NAS(1977)는 『개역개정』과 동일한 번역이나 NAS(1995)은 KJV와 동일하다. 마태복음 21:29-31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본문의 문제와 더불어 문맥 안에서의 논리적인 흐름과 함께 아주 복잡한 논의를 일으켰던 본문이다.¹⁸⁾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의 목적을 위해 단순화하여 다음처럼 TR과 WHO, 그리고 GNT

16) 누가복음 7:35의 해당부분에서 TR은 καὶ ἐδικαιώθη ἡ σοφία ἀπὸ τῶν τέκνων αὐτῆς πάντων으로, GNT는 καὶ ἐδικαιώθη ἡ σοφία ἀπὸ πάντων τῶν τέκνων αὐτῆς.로 나온다.

17)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24를 보라.

18) 이 이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 R. Michaels, “The Parable of the Regretful Son,” *HTR* 61 (1968):15-26;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43-4;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37; B. F. Westcott and F. J. A. Hort,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82; reprint,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8), 2:15-7 등을 보라.

(Tischendorf⁸ NT와 동일함)의 본문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다(편의상 29-30절만 비교하였다):

TR은 29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30 καὶ προσελθὼν τῷ δευ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ὼ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이지만,

WHO는 29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ὼ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 30 προσελθὼν δὲ τῷ δευ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이고

GNT는 29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Οὐ θέλω, ὕστερον δὲ μεταμεληθεὶς ἀπῆλθεν. 30 προσελθὼν δὲ τῷ ἑτέρῳ εἶπεν ὡσαύτως.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Ἐγὼ, κύριε, καὶ οὐκ ἀπῆλθεν.이다.

위의 세 가지 본문을 비교해 보면 GNT가 WHO를 거쳐 TR로 돌아간 형국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WHO의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GNT를 따라간 『공동개정』, 『표준개정』, RSV, NIV 등은 TR로 돌아가서 KJV와 같이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무튼 단순한 결론을 내린다면 『개역개정』은 이 본문에서 TR이나 KJV를 따라가지는 않았음은 분명하나, 또한 이 부분에서 TR과 GNT가 본문전승을 공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4) 마태복음 24:33

마태복음 24:33 후반절에서 TR(οὕτως καὶ ὑμεῖς ὅταν ἴδητε πάντα ταῦτα γινώσκετε ὅτι ἐγγύς ἐστιν ἐπὶ θύραις)을 따라 KJV의 번역자들은 “So likewise ye, when ye shall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 *even* at the doors.”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GNT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으나,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이지만, 각주에 “또는 때가”라고 실려 있다. 즉, KJV의 번역자들은 ὅτι절의 동사 ἐστιν의 주어를 “때”로 보고 『개역개정』의 번역자들은 “인자”로 보았다. RSV와 NRS는 동일하게(“you know that he is near, at the very gates.”) KJV와 차이가 나며 우리의 『개역개정』과 일치한다. 이점에서 『표준개정』과 『공동개정』도 『개역개정』과 동일한 입장에서 있고, 『공동개정』에는 다른 두 번역본과 같은 각주도 없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TR, 즉 저본의 흔적이거나 KJV의 흔적이, 비록 각주이긴 하지만, 『개역개정』에 남아 있는 예로 보아야 한다.

5) 마태복음 24:42

마태복음 24:42에서 KJV의 번역자들은 “...what hour your Lord is coming.” 처럼 “시”(hour, ὥρα)를, 『개역개정』의 번역자들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와 같이 “날”(day, ἡμέρα)을 가지고 있는 저본을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구절에서 TR은 “시”(ὥρα)로 GNT⁴에는 “날”(ἡμέρα)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표준개정』은 『개역개정』과 동일한 번역이나 각주가 없고, 『개역개정』에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시각에’”라는 각주가 있다. 『공동개정』처럼 “언제”로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저본의 본문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구절에서도 대표적인 한글 번역 성서들에는 TR의 흔적이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3. 마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절 없음”(세 군데)이 비교적 적으나 첨가가 많다(다섯 군데). 상이한 어구도 “절 없음”의 경우와 같이 세 군데에서 발견된다.

3.1. 절 없음

마가복음에는 말미(16:9-20)를 위시하여 “절(들) 없음”이 9:44, 46; 15:28 등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마가복음 9장과 15장의 예가 앞에서 다른 마태복음의 “절(들) 없음”의 예와 흡사하기 때문에 논의는 생략하고 마가복음의 말미만을 다루었다.

대표적인 한글 번역 성서들에는 마가복음 16:9-20을 본문에 두되, 원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괄호 속에 두고 있다. 그러나 KJV는 TR을 따라 이 부분을 번역하여 본문에 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 본문이나 동방교회 전통 본문과 일치한다. KJV와 TR의 기타 번역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마가복음의 전통적인 결말이자 대표적인 한글 성서에 수록된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이문인데, 마가복음 16:9 이하에 나오는 이문은 대략 다음 4가지로 분류된다:¹⁹⁾

- (1) 짧은 말미(막 16:8 이하에 아무 것도 따라 오지 않음): ✠ B 304

19) B. F. Westcott and F. J. A. Hort,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2:28-51;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97-10;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03-5; C. A. Evans, *Mark 8:27-16:20*, 543-7 등을 참조하라.

syr^s cop^{sams} arm^{mss} geo 유세비우스^{mss} 제롬^{mss}

(2) 중간 말미(막 16:8 +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모든 것을 고하였다. 그 후에 예수께서 친히 저들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에 관한 기록하고 쇠하지 않는 선포의 말씀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보내셨다.”): it^k

(3) 긴 말미(막 16:8 + 16:9-20, KJV나 한글성경에서 괄호 속에 포함된 내용): A C D Δ Θ f³ Byz Lect it vg syr^{c, p, h, pal} cop^{bo, fay} arm^{mss} eth^{pp} geo^B slav 이레니우스 디두모 어거스틴

(4) 확장된 긴 말미(막 16:8 + 위의 이문 둘째와 셋째를 합쳐 놓은 것): L Ψ 080 099 274 syr^{hmg} cop^{samss, bomss} eth^{mss}

여기서 외적인 증거들만을 볼 때는 이문 (1)이 원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이문 (3)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에 마가복음 16:9 이하는 마가의 글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²⁰⁾ (i) 방금 본대로 이문 (2)와 (4)의 외적 증거는 이문 (1)에 비해 아주 약하다; (ii) 이문 (2)의 경우 마가의 어휘도 아니고 수사적 분위기도 마가의 단순함과는 거리가 멀다; (iii) 이문 (3)도 마가의 것이 아니거나 마가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어휘가 열일곱 개나 나오고, 8절과 9절이 연결이 부드럽지 않고, 마리아가 이미 1절에서 나왔는데 9절에서 다시 밝히는 것도 어색하다; (iv) 이문 (4)는 이미 지적인 이문 (2)와 (3)의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적, 내적 증거들의 관점에서 마가복음 16:9-20이 마가복음의 원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 간의 공통된 의견이다.²¹⁾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 8절의 후반부(“καὶ οὐδενὶ οὐδέν εἶπαν· ἐφοβοῦντο γάρ.”=“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것도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가 접속사 γάρ로 끝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접속사로 끝나게 된다. 원래의 마가복음은 왜 16:8에서 그것도 접속사 γάρ로 끝나게 되었을까? 이를 해결하고자 마가복음 말미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나왔다: (i) 마가는 무엇인가(체포? 혹은 죽음?)에 방해를 받아서 복음서의 결론부를 기록할 수 없었다; (ii) 마가

20) J. A. Brooks, *Mark*, NAC (Nashville: Broadman Press, 1991), 272-273.

21) 현대주석가들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Caspar Gregory도 “마가복음의 이 마무리 구절들은 이 복음서에 속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신약성서에 속하는 것도 아님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C. R. Gregory, *The Canon and Text of the New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24), 513. 또한 빈센트 테일러(Vincent Taylor)는 “9-20절이 마가복음 원문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거의 일반적인 결론이다. ... 이에 대한 외적 그리고 내적 증거들은 결정적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V. Taylor,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London: Macmillan, 1952), 610. 또한 W. R. Farmer, *The Last Twelve Verses of Ma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도 참조하라.

복음의 결론부가 사본들이 복사되기 전에 손실되었다; (iii) 마가복음 16:8이 원래 복음서의 결론으로 의도되었다.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메츠거는 대안 (iii)을 받아들일 수 없고 (i)이나 (ii)일 것으로 보지만,²²⁾ 대안 (iii)을 주장하는 이들은 마가복음이 16:8에서 끝난 것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경이” 혹은 “놀람과 떨림”(1:22, 27; 2:12; 4:14; 5:15, 33, 42; 9:6, 15, 32; 10:24, 32; 11:18; 12:17; 15:5-6; 16:5-6)과 부합하고 마가복음의 급격한 시작과 잘 맞는 마무리이며 마가가 의도한 예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²³⁾

GNT의 편집자들이 마가복음 16:9-20을 꺾괄호 속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대표적인 한글 번역 성서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에서, 영어 번역 성서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다수 본문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2. 어구 첨가

마가복음에는 그 분량에 비하여 어구가 첨가된 곳이 마태복음보다 많다. 논의 대상이 될 만한 곳은 다섯 군데인데, 마가복음 10:29는 마태복음 19:29와 동일한 예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1) 마가복음 1:1

마가복음 1:1(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θεοῦ], GNT)은 마가복음 전체 책의 제목과 같은 구실을 한다. TR(Ἀρχὴ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은 GNT와는 달리 마지막 어구 “υἱοῦ τοῦ θεοῦ”를 꺾괄호에 넣지 않고 있다. 그래서 KJV의 번역자들은 마가복음 1:1을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개역개정』이나 『표준개정』에는 비슷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번역되어 있고,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이라고 실려 있다. 그러나 『공동개정』은 KJV와 같이 본문에 아무 표시도 없고 각주도 없이 이 어구를 번역하여 본문에 실고 있다.

사본상의 외적 증거들은 이 어구의 생략 쪽이 강하지만, 내적 증거들인 마가복음 1:11; 5:7; 9:7; 14:61 등과 15:39의 로마 백부장의 고백 등의 내용을 볼 때는

22)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3rd. e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28.

23) J. A. Brooks, *Mark*, 274-275.

이 어구가 원문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²⁴⁾ 또한 이 어구에서 모두 다 “ου(혹은 υ)”으로 끝이 나는 연쇄적인 여섯 개의 속격으로 인하여 “υἰοῦ τοῦ θεοῦ”(혹은 “υἰοῦ θεοῦ”)가 우발적으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⁵⁾ 그래서 GNT는 이 어구를 본문에 두되 괄호 속에 넣고 “C”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GNT를 저본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한글 번역성서들의 번역이 GNT가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TR이나 KJV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마가복음 10:24

마가복음 10:24 중간에서 “Children, how hard is it for them that trust in riches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라고 번역된 KJV는 TR(Τέκνα πῶς δύσκολόν ἐστιν τοὺς πεποιθότας ἐπὶ τοῖς χρήμασι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εἰσελθεῖν·)을 따라 된 것이며 각각 밑줄 친 부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이라는 어구가 『개역개정』보다 더 들어가 있다. 『개역개정』이나 RSV의 해당 절 각주에는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혹은 “who those who trust in riches”)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동개정』에는 아예 각주도 달려 있지 않다. 이러한 수식어들은 예수의 가혹한 말을 부드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붙여져서 예수의 말의 보편성을 제한하게 하였는데, 수식어들의 다양성과 증거 사본들의 후대성으로 미루어 원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음 절(25절)의 영향을 받아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판단된다.²⁶⁾ 한글 번역 성서들은 이 구절에서 TR이나 KJV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마가복음 13:33

마가복음 13:33 전반절에서 KJV는 TR(βλέπετε ἀγρυπνεῖτε· καὶ προσεύχεσθε·)을 따라 “Take ye heed, watch and pray:”라고 번역되었다. 그러나 『개역개정』의 본문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라고만 되어 있고, 각주에 “어떤 사본에, 있어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부분에서 『표준개정』이나 『공동개정』도 『개역개정』과 흡사하다. 이 어구, καὶ προσεύχεσθε가 초기 사본들에 없는 것으로 보아 마가복음 14:38의 영향을 받아 후대의 필사자들이 첨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²⁷⁾ 대표적인 한글 번역 성서들은 이 부분에서 TR의 영향을 벗어났음을 알 수

24) R. A. Guelich, *Mark 1:1-8:26*, WBC (Dallas: Word, 1989), 6, 10.

25)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49;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59;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56 등을 보라.

26)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398과 404;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86;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56 등을 참조하라.

있다.

4) 마가복음 14:68

마가복음 14:68 끝에 KJV에서는 “and the cock crew.”라는 어구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TR의 “καὶ ἀλέκτωρ ἐφώνησεν.”을 번역한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해당 절에 이 구절이 없고, 다만 각주에 “마침 닭이 울더라.”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표준개정』이나 『공동개정』도 『개역개정』과 흡사하다. TR에 이 어구가 들어간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72절이나 앞에서(30절) 예수께서 언급한 “두 번”에 맞추고자 한 의도로 볼 수도 있으나, 닭이 한 번만 운 것으로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이 구절이 원문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²⁸⁾ 그래서 GNT의 편집자들은 이 어구를 본문에 두면서 괄호 속에 담고 있다.

3.3. 상이한 어구 혹은 번역

마가복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상이한 어구 혹은 번역의 예는 세 군데이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 13:29는 마태복음 24:33의 예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였다.

1) 마가복음 6:22

마가복음 6:22의 첫 부분은 본문과 번역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TR의 본문(καὶ εἰσελθούσης τῆς θυγατρὸς αὐτῆς τῆς Ἡρωδιάδος)과 GNT의 본문(καὶ εἰσελθούσης τῆς θυγατρὸς αὐτοῦ Ἡρωδιάδος)이 밑줄 친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거나, KJV(And when the daughter of the said Herodias came in)와 RSV(For when Herodias' daughter came in)의 번역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RSV가 NRS(When his daughter Herodias came in)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 지점에서 물론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이 TR과 동일한 점이나 WHO는 GNT와 동일한 점은 이해가 되나, 티센도르프 8판이 TR과 동일한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개정』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GNT의 본문이 아니라 TR의 본문의 내용처

27)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90-1;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96 등을 보라.

28)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618;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92-93;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99 등을 보라.

럼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서로 상반되게도 『개역개정』의 각주에는 “또는 친딸이 들어와”라고, 『표준개정』의 각주에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딸 헤로디아가’”라고 적고 있다. 한글 번역 성서 중에는 『표준개정』만이 그것도 각주에서 GNT의 본문을 따를 뿐이며 위에 언급한 영어 번역 성서들 중에서 NRS의 번역자들만 GNT의 본문을 따라서 “헤롯의 딸 헤로디아”(his daughter Herodias)로 번역하고 있는 셈이다.

즉, 마가복음 6:22의 이 부분의 문제는, 24절의 언급처럼 전통적인 견해인 “헤로디아의 딸”이자 살로메로 알려진 여자인가,²⁹⁾ 혹은 법적인 면을 강조하여 “헤롯의 (의붓) 딸”인가³⁰⁾ 하는 문제인 동시에, TR과 GNT간의 예처럼 상이한 본문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 마가복음 6:22의 경우는 대표적인 한글 번역 성서뿐만 아니라 우수한 영어 번역 성서까지도 TR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2) 마가복음 8:16

마가복음 8:16에서 TR(καὶ διελογίζοντο πρὸς ἀλλήλους λέγοντες, ὅτι ἄρτους οὐκ ἔχομεν.)과 GNT(καὶ διελογίζοντο πρὸς ἀλλήλους ὅτι ἄρτους οὐκ ἔχουσιν.)의 본문에 밑줄 친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TR은 ὅτι절의 동사가 1인칭 복수(ἔχομεν)이며 GNT는 3인칭 복수(ἔχουσιν)이다. 물론 KJV는 TR을 따라 “And they reasoned among themselves, saying, *It is because we have no bread.*”라고 번역되었다. 그런데 RSV는 “And they discussed it with one another, saying, “*We have no bread.*””라고 번역되어 밑줄 친 부분의 어순이나 동사가 마치 TR을 따라 된 것처럼 보이고, NRS도 “They said to one another, “*It is because we have no bread.*””라고 되어 있어서 KJV처럼 번역된 것 같다.

이 구절에서 『개역개정』의 번역자들도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저본인 GNT를 따른 것이 아니라 TR을 따른 KJV처럼 번역하였다. 이 부분에서 『표준개정』과 『공동개정』등도 『개역개정』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 구절의 번역은 저본 간에 차이가 나는 상이한 동사의 관점에서보다는 화법(간접 혹은 직접)의 차이로도 볼 수도 있다.³¹⁾ 즉, ὅτι를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아니라 인용부호와 같은 서술의 ὅτι로 보아서 이 절을 직접화법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여기서 한

29)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73-4;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72; P. Richardson, *Herod: King of the Jews and Friend of the Romans* (Edinburgh: T&T Clark, 1996), 39 등을 보라.

30)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254-5와 258-9; R. A. Guelich, *Mark 1:1-8:26*, WBC (Dallas: Word, 1989), 325, 332; Richardson, *Herod*, 39 등을 보라.

31)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80-81을 참조하라.

글 성서들이 TR이나 KJV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4. 누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절 없음”보다는 첨가의 경우와 상이한 어휘 혹은 번역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GNT가 오히려 TR이나 KJV로 돌아간 예도 있으며, TR이 원본이었을 것으로 설명되는 예들도 있다.

4.1. 절 없음

『개역개정』에서 누가복음에는 절 표시는 있으나, “절 없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 있다: 누가복음 17:36; 23:17; 22:43-44이다. 여기서 두 번째 예는 특성상 앞에서 다룬 마태복음의 예와 흡사하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하였다.

1) 누가복음 17:36

누가복음 17:36에서 KJV는 “Two men shall be in the fiel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라는 본문이 있는데, 당황스럽게도 TR엔 이 구절이 없다. 다수 본문에서도 본문에는 없지만 비평장치에 많은 다수 사본들에는 있는 것으로 나온다.³²⁾ 그리스 정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전통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본문이 있다.³³⁾ δύο θέλουσιν εἶσθαι ἐν τῷ ἀγρῷ, ὁ εἷς παραλαμβάνεται καὶ ὁ ἄλλος ἀφίεται. 『개역개정』이나 『표준개정』에는 누가복음 17:36이 없고, 다만 각주에 “어떤 고대 사본에, 36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가 있음”이라는 언급이 있다. 누가복음 17:36은 35절과 끝나는 동사(ἀφεθήσεται)가 같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본적인 증거들을 보면 마태복음 24:40 (TR: τότε δύο ἔσονται ἐν τῷ ἀγρῷ ὁ εἷς παραλαμβάνεται καὶ ὁ εἷς ἀφίεται; GNT: τότε δύο ἔσονται ἐν τῷ ἀγρῷ, εἷς παραλαμβάνεται καὶ εἷς ἀφίεται.)의 평행구절의 영향을 받은 필사자가 이곳에 동일한 구절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³⁴⁾ 이 구절에서 한글 번역 성서들은 KJV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 TR에도 이 구절은 본문에 없지만, 공히 이

32) Z. C. Hodges and A. L. Farstad,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256의 비평장치를 보라.

33) *H KAINH DIAΘHKH*, 323.

34)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 (New York: Doubleday, 1985), 1173;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42 등을 참조하라.

구절이 본문에 없는 GNT를 저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글 성서들이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누가복음 22:43-44

누가복음 22:43-44,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는 구절이 『개역개정』에는 KJV와 같이 아무런 표시 없이 정식으로 본문 안에 번역되어 있다. 이는 TR에 나오는 43 ὥφθη δὲ αὐτῷ ἄγγελος ἀπ’ οὐρανοῦ ἐνισχύων αὐτόν 44 καὶ γενόμενος ἐν ἀγωνίᾳ ἐκτενέστερον προσήχετο· ἐγένετο δὲ ὁ ἰδρῶς αὐτοῦ ὡσεὶ θρόμβοι αἵματος καταβαίνοντες ἐπὶ τὴν γῆν.을 번역한 것이며, 다수 본문이나 동방교회 전통 본문도 TR과 동일하다. 하지만 『표준개정』은 저본인 GNT(〔43 ὥφθη δὲ αὐτῷ ἄγγελος ἀπ’ οὐρανοῦ ἐνισχύων αὐτόν. 44 καὶ γενόμενος ἐν ἀγωνίᾳ ἐκτενέστερον προσήχετο· καὶ ἐγένετο ὁ ἰδρῶς αὐτοῦ ὡσεὶ θρόμβοι αἵματος καταβαίνοντες ἐπὶ τὴν γῆν.〕)처럼 이 구절을 본문에 두되 “후대에 첨가된 본문이지만 교회에서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읽어온 본문임”을 표시하는 꺾괄호 속에 두고 있다. 『공동개정』은 이 구절을 본문에는 두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고 있다.

누가복음 22:43-44에 대한 사본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오래된 사본들과 다양한 본문유형의 사본들에는 없으며,³⁵⁾ 그래서 티센도르프 8판 NT에는 본문에 아무 표시가 없이 포함되어 있으나, WHO에는 GNT가 따라간 것처럼 꺾괄호 속에 두고 있다. RSV에는 이 구절이 생략되었으나, NIV와 NJB에는 포함되어 있고, NRS에는 꺾괄호 속에 있다. 이 구절에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개역개정』은 TR이나 KJV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표준개정』은 부분적으로 벗어났으며, 『공동개정』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2. 어구 첨가

누가복음에는 여러 곳에서 TR와 KJV에 GNT와 주요 한글 번역 성서들에 포함되지 않은 어구들이 들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선별하여 살펴보았다.

1) 누가복음 8:43

35)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1443-1444;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50;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46 등을 참조하라.

누가복음 8:43에서 KJV, “And a woman having an issue of blood twelve years, which had spent all her living upon physicians, neither could be healed of any,”의 밑줄 친 부분은 TR의 καὶ γυνή οὖσα ἐν ῥύσει αἵματος ἀπὸ ἐτῶν δώδεκα ἣτις εἰς ἰατρούς προσαναλώσασα ὅλον τὸν βίον οὐκ ἴσχυσεν ὑπ’ οὐδενὸς θεραπευθῆναι의 밑줄 친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이 본문에 없고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라는 언급이 있다. 『표준개정』에는 이 부분을 본문에 두되 대괄호([]) 속에 두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원본의 반영임이 분명하지 않은 본문”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개정』은 이 부분을 본문에 아무 표시 없이 두어 원문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 5:26(καὶ πολλὰ παθοῦσα ὑπὸ πολλῶν ἰατρῶν καὶ δαπανήσασα τὰ παρ’ ἑαυτῆς πάντα καὶ μηδὲν ὠφεληθεῖσα ἀλλὰ μᾶλλον εἰς τὸ χεῖρον ἐλθοῦσα, TR)의 반영이라면 의사인 누가가 이 어구를 생략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³⁶⁾ 초기 주요 사본 증거들에는 이 어구가 없는 점을 설명하기 힘들다.³⁷⁾ GNT가 이 어구를 본문에 두되 겹괄호 속에 두고 있는 탓인지, 영어 번역본들에는 이 구절을 포함하는 번역본과 그렇지 않은 번역본의 수가 비등하다.

2) 누가복음 8:45

누가복음 8:45의 후반부에 예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KJV에는 “Peter and they that were with him said,”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TR의 본문, εἶπεν ὁ Πέτρος καὶ οἱ μετ’ αὐτοῦ을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한글 번역 성서에는 이 밑줄 친 부분이 본문에는 없다.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에서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언급이 있고 『표준개정』도 이와 비슷하나, 『공동개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어구는 마가복음 5:31(“제자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베드로가 예수를 책망하였다는 비난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필사자들의 시도였을 수 있는데, 이는 주요한 사본적 증거들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이들의 대변인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비교. 눅 9:20; 12:41).³⁸⁾ 여기서도 대표적인 한글 번역 성서들이 TR 혹은 KJV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

3) 누가복음 11:2

36)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 (New York: Doubleday, 1970), 746.

37)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17;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23 등을 참조하라.

38)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747;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17 등을 참조하라.

저본 TR의 영향으로 KJV에는 이 구절의 말미에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ὡς ἐν οὐρανῷ, καὶ ἐπὶ τῆς γῆς.)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6:10의 영향을 받아 이 구절을 조화시킨 다수 본문의 전승을 TR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역개정』이나 『공동개정』은 GNT⁴와 같이 이 어구를 넣지 않았다. 교회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다수 본문 전승에는 이렇게 공관복음서나 구약을 인용한 신약 본문에서 서로 내용을 갈게 하기 위한 필사자들의 시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4) 누가복음 9:55-56

KJV에서, But he turned, and rebuked them, and said, Ye know not what manner of spirit ye are of. 56 For the Son of man is not come to destroy men's lives, but to save them. And they went to another village.의 밑줄 친 부분은 TR의 55 στραφεὶς δὲ ἐπετίμησεν αὐτοῖς καὶ εἶπεν, Οὐκ οἴδατε οἴου πνεύματός ἐστε ὑμεῖς· 56 ὁ γὰ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οὐκ ἦλθεν ψυχὰς ἀνθρώπων ἀπολέσαι, ἀλλὰ σῶσαι. καὶ ἐπορεύθησαν εἰς ἑτέραν κώμην의 밑줄 친 부분을 번역한 것인데, 『개역개정』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라고 번역하여 각주에 달고 있다. 『표준개정』과 『공동개정』도 이 부분에서 『개역개정』과 동일하다. 다수 본문(괄호 속에)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도 TR과 동일한 어구를 이곳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본들을 살펴보면, 여기 55하-56절에 첨가된 문장은 누가복음 19:10을 반영한 후대의 삽입으로 여겨진다(참고 요3:17).

5) 누가복음 24:42

많은 사본들이 TR처럼 “and some honeycomb”(καὶ ἀπὸ μελισσίου κηρίου.)이라는 어구를 삽입하고 있다. 그래서 KJV는 이 구절을 “And they gave him a piece of a broiled fish, and of an honeycomb.”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개역개정』, 『표준개정』, 『공동개정』중 어떤 번역에도 이 어구는 없다. 그러나 다수 본문이나 동방교회 전통 본문에는 이 어구가 있다.

고대의 일부 교회에서는 꿀이 성찬식과 세(침)례 의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식 시행에 성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사자들이 이 어구를 첨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³⁹⁾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이 구절은 세(침)례식이나 성찬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구절이며, 오히려 καὶ ἀπὸ

39)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56.

μελισσίου κηρίου가 21자로 한 줄을 형성하는 분량이며 바로 뒤에 나오는 καί와 함께 동일서두현상(homoioarcton) 때문에 이 한 줄이 원문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⁴⁰⁾ 이 지점에서 한글 번역 성서들이 TR이나 KJV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았으나 오히려 TR이 원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누가복음 24:52

누가복음 24:52 전반부에서 KJV는 “And they worshiped Him”라고 번역되어 TR(προσκυνήσαντες αὐτὸν ὑπέστρεψαν)을 반영하고 있다. 『개역개정』의 이 부분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이다. 그리고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 부분에서 『표준개정』은 『개역개정』과 흡사하나, 『공동개정』은 아무 표시 없이 KJV처럼 번역되어 있다.

4.3. 상이한 어구 혹은 번역

누가복음에는 TR이나 KJV에는 『개역개정』과는 다른 표현들이 들어 있다. 또한 같은 원문일지라도 KJV와 『개역개정』이 달리 번역된 곳도 있다.

1) 누가복음 2:14

누가복음 2:14에서 TR과 KJV는 각각, “Δόξα ἐν ὑψίστοις θεῶ καὶ ἐπὶ γῆς εἰρήνη ἐν ἀνθρώποις εὐδοκία.”와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 will toward men.”로서 이(2)행시이다. 이는 『개역개정』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처럼 삼(3)행시와는 다른 번역이다. 『표준개정』의 번역도 『개역개정』과 대동소이하다.

이 이문 단위에 그리스어 철자 하나(ζ의 유무) 차이로, 두 가지 이문, εὐδοκία(주격, “기뻐함”)와 εὐδοκίας(속격, “기뻐함의”)가 나온다. 사본적인 증거를 보면, 속격(εὐδοκίας)이 더 어려운 이문이며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방 계열의 가장 오래된 증거사본들(κ* A B* D W it^d vg^{ww, st} cop^{sa})과 교부들(오리겐, 시릴, 제롬, 어거스틴 등)의 지지를 얻고 있다. 아마도 주격(εὐδοκία:- κ² B² L Δ Θ Ξ Ψ 0233^{vid} f^l f^{l3} Byz Lect syr^{pal} cop^{bo} geo arm 등과 여러 교부들)으로 된 이문이 발생한 원인은 필사상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⁴¹⁾ 만약 원문이 εὐδοκία(주격)였다면 누가복

40) J. van Bruggen, “The Majority Text: Why not Reconsider Its Exile?” 150; G. D. Kilpatrick, “Luke 24:42-43,” *Novum Testamentum* 28 (1986), 306-308 등을 참조하라.

41) 주격과 속격의 차이란 단순히 마지막 철자 하나의 차이인데, 속격일 경우 마지막 철자 ζ는 언셜

음 2:14는 삼행시가 될 것이고, εὐδοκίας이었다면 이행시가 될 것이다.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본문은 TR처럼 삼행시로 보았고,⁴²⁾ GNT⁴는 이행시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 저본(底本)으로 사용한 KJV에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 will toward men”과 같이 삼행시로 번역되고, NIV나 RSV/NRSV에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hom he favors!”와 같이 이행시로 번역되어 있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를 대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장 흐름도를 그려보면 더 명확해진다:

(1) TR/Majority Text/동방교회 전통 본문

δόξα	θεῶ	ἐν ὑψίστοις	영광	하나님께	높은 곳에서
<u>καὶ</u>	εἰρήνη	ἐπὶ γῆς	<u>그리고</u>	평화	땅위에
εὐδοκία		ἐν ἀνθρώποις	기쁨함	백성에게는	

(2) GNT⁴

δόξα	ἐν ὑψίστοις	θεῶ	영광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u>καὶ</u>	εἰρήνη	ἐπὶ γῆς	ἐν ἀνθρώποις	εὐδοκίας	<u>그리고</u> 평화
					땅위에서 기쁨함의 사람들에게

두 이문 중에서 원문을 주격인 εὐδοκία로 보는 첫 번째 경우를 좀 더 조심스럽게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부적절함이 발견된다. 첫째는, 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δόξα가 위치한 첫 행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행들은 그렇지 못하다. 둘째는, 아주 중요한 점인데, 첫 행과 둘째 행 사이에는 접속사 καὶ가 있고, 둘째 행과 셋째 행 사이에는 καὶ가 없다. 하지만, 원문이 속격인 εὐδοκίας였다면, 훌륭한 평행법이 된다.⁴³⁾ GNT⁴는 이 구절을 셈어(Semitic) 시로 보아 이행으로 배열한다. 이 경우에 εὐδοκίας가 평행법을 깨지 않고 단지 ἀνθρώποις(백성)의 형용사적 수식어 역할을 할 뿐이다. 기쁨함을 지닌 사람 혹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쁨함을 입은 사람의 뜻이다.⁴⁴⁾

체(uncial)로는 영어철자의 c를 위첨자로 쓴 것과 같이 되어(즉, EYΔOKIA^C), 흡사 주격(EYΔOKIA)의 위에 찍은 점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사자들이 잘못 볼 수도 있다.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06-107.

42) Z. C. Hodges and A. L. Farstad,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184; *H KAINH DIAΘHKH*, 227.

43) 문장 흐름도에 관하여 G. D. Fee, 『신약성경 해석 방법론』, 장동수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3), 89-90을 참조하라.

44) 여기에 나오는 ἐν ἀνθρώποις εὐδοκίας에 대하여 보곳(E. Vogt)과 피츠마이어(J. A. Fitzmyer) 같은 몇몇 학자들은 사해사본의 연구를 통하여 본 어구의 셈어적 배경을 입증하면서, “그(하나님)가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즉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이들에게”라고 주장하는데, 누

여기에서 TR과 GNT의 본문 간에는 그리스어 철자 하나의 차이이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첫째로, 시의 행에 차이를 주고, 둘째로, “불특정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메시아적 평화 (messianic peace)”와 “하나님의 택정함(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라는 교리적 차이를 가져온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지점에서 한글 주요 성서들은 TR이나 KJV의 영향을 벗어나 있음은 기쁜 일이다.

2) 누가복음 2:33, 43

TR에는 이 두 구절에서 일관성 있게, GNT⁴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πατήρ αὐτοῦ καὶ ἡ μήτηρ) 대신에, “요셉과 그의 어머니”(Ἰωσήφ καὶ ἡ μήτηρ αὐτοῦ)라는 어구가 사용되었다. 물론 KJV는 “Joseph and His mother”로 번역되었고,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도 이 지점에서 TR과 동일하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저본인 GNT의 본문을 따라 이 두 군데에서 “그의 부모” 혹은 “그 부모”로 번역하였다. 사본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ὁ πατήρ가 Ἰωσήφ으로(33절) 혹은 οἱ γονεῖς가 Ἰωσήφ καὶ ἡ μήτηρ로(43절) 대체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⁴⁵⁾

그러나 이 문단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면,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이 어구를 보면 이러한 설명은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거의 모든 사본들 가운데 누가복음 2:27, 41에서 부모(οἱ γονεῖς)라는 어휘가 계속 나오고, 누가복음 2:48에서는 심지어 마리아가 직접 예수께 “너의 아버지와 내가”(ὁ πατήρ σου κάγω)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33, 43에서는 오히려 TR의 “요셉과 그의 어머니”(Ἰωσήφ καὶ ἡ μήτηρ αὐτοῦ)가 원문이며 이를 의미론적으로 이상하게 여긴 초기 몇몇 사본의 필사자들이 GNT⁴에 나오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πατήρ αὐτοῦ καὶ ἡ μήτηρ)처럼 바꾸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⁴⁶⁾

3) 누가복음 7:7

누가복음 7:7 하반절에서 KJV는 “but say in a word, and my servant shall be healed.”라고 되어 있으나, 『개역개정』에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

가복음 1-2장이 셈어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E. S. J. Vogt, ““Peace among Men of God’s Good Pleasure” Lk. 2:14,” K. Stendahl, ed., *The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 1992), 114-117; J. A. Fitzmyer, ““Peace upon Earth among Men of His Good Will’ (Lk 2:14),” J. A. Fitzmyer, ed., *The Semitic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101-104.

45)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07-108을 보라.

46) J. van Bruggen, “The Majority Text: Why not Reconsider Its Exile?”, 147-153을 참조하라.

선”라고 되어 있다. 각각 밑줄 친 부분에서 전자는 직설법이고, 후자는 명령법 같다. 사본적인 변화는 TR(ἀλλὰ εἶπε λόγῳ καὶ ἰαθήσεται ὁ παῖς μου)과 GNT⁴(ἀλλὰ εἶπε λόγῳ, καὶ ἰαθήτω ὁ παῖς μου.)에서 각각 밑줄 친 미래직설법과 명령법에 있다. 『개역개정』의 각주에는 어떤 사본에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TR이나 KJV를 의식한 배려인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에서 TR에서의 사본적인 변화는 “명령어 ἰαθήτω의 단호한 어조는 필사자가 마태의 미래직설법 ἰαθήσεται(마8:8)에 동화되어 부드러워진 것”⁴⁷⁾으로 보인다. KJV의 번역자들은 TR을 충실히 따라 후반부를 직설법으로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의 번역자들은 GNT를 충실히 따라 후반부를 명령법으로 번역하였으나 TR이나 KJV를 의식하여 각주를 달고 있다. 이 지점에서 『표준개정』은 명령법으로 번역하여 GNT를 따랐으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번역된 『공동개정』은 TR이나 KJV를 따른 번역같이 보인다.

4) 누가복음 10:42

누가복음 10:42는 WHO(ὀλίγων δέ ἐστιν χρεία)를 따르던 GNT가 오히려 KJV(But one thing is needed)의 저본인 TR(ἐνός δέ ἐστιν χρεία)로 돌아간 예에 속한다. 물론 여기서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본문도 TR과 동일하고, 티센도르프 8판의 본문조차도 TR과 동일하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본문에 “ὀλίγων이라는 이문을 따라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두고, 각주에 “최근 본문(GNT)에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로 되었음”이라고 적고 있다. 『표준개정』은 각주 없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라고 번역되어 WHO를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 사본 38과 몇몇 번역본들에만 존재하는 이문 ὀλίγων은 ἐνός의 절대성을 완화시켜 보려는 필사자들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⁸⁾ 『공동개정』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하여 GNT, 그리고 결과적으로 TR을 따라갔다.

5) 누가복음 14:5

누가복음 14:5에서 KJV에는 TR(ὄνος ἢ βοῦς)을 따라 “a donkey or an ox”라고 번역된 부분을 『개역개정』의 번역자들은 GNT(υἱός ἢ βοῦς)를 따라 “아들이

47)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14;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652 등을 참조하라.

48)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894;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25;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29 등을 참조하라.

나 소가”로 번역하고 각주에 “어떤 사본에, 나귀나”라고 적고 있다. 아들(υἱός)과 소(βοῦς)를 나란히 놓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필사자들이 υἱός를 ὄνος나(막 13:15) 또는 πρόβατον으로(마 12:11) 고친 것 같다.⁴⁹⁾ 그러나 이 이문 단위에서 주요한 초기 사본들과 흥미롭게도 심지어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까지도 GNT와 같은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한글 주요 번역 성서들이 다른 다수 본문 혹은 비잔틴 계열 전승들과 함께 TR과 KJV의 영향을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5.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한글 번역 성서들과 TR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한일서 5:7-8만큼이나 유명한 요한복음 7:53-8:11(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을 위시하여 몇몇 이문 단위들이 있다. 이것과 더불어 요한복음 1:3-4와 4:35-36의 구두점 문제, 요한복음 1:18의 아들인가 하나님인가의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5:4의 진정성 문제를 다루었다.

5.1. 절 없음

요한복음에는 요한일서 5:7-8 못지않은 생략 구절들이 있다. 하나는 요한복음 7:53-8:11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5:3하-4이다.

1) 요한복음 5:3하-4

요한복음 5:3하에는 “3 … ἐκδεχομένων τὴν τοῦ ὕδατος κίνησιν 4 ἄγγελος γὰρ κατὰ καιρὸν κατέβαινεν ἐν τῇ κολυμβήθρα, καὶ ἐτάρασσε τὸ ὕδωρ· ὁ οὖν πρῶτος ἐμβὰς μετὰ τὴν ταραχὴν τοῦ ὕδατος, ὑγιὴς ἐγένετο, ᾧ δὴποτε κατειχετο νοσήματι.”이라는 어구가 들어 있는 TR을 저본으로 한 KJV에는 “3 …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4 For an angel went down at a certain season into the pool, and troubled the water: whosoever then first after the troubling of the water stepped in was made whole of whatsoever disease he had.”라는 번역이 나온다. 이 지점에서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본문도 TR의 본문과 동일하다. 이 구절에서 『개역개정』은 “3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49)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25;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38 등을 참조하라.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낮게 됨이러라”라고 번역하면서 괄호 속에 두고 있다. 각주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다”라고 쓰여 있다.

이 구절은 (1)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없고, (2) 요한의 것이 아닌 단어나 표현들이나 심지어는 신약성서의 *harpax legomena*도 많고, (3) 이 구절의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⁵⁰⁾ 그렇다면 한글 번역 성서들에도 우수한 영어번역성서, 즉 RSV/NRS나 NJB 등처럼 “절 없음”으로 처리하였더라면, TR을 벗어났음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다만 NAS가 이 구절을 본문에 두면서 이탤릭체로 처리하여서 한글 번역 성서들과 흡사한 입장에서 있다.

2) 요한복음 7:53-8:11

전통적으로 요한복음 7:53-8:11에 나오는 소위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pericope de adultera* 혹은 *pericope adulterae*, 이후로는 PA로 표기함)는 대부분의 번역 성서에는 이중괄호로 처리되거나 부록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글 번역 성서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TR을 저본으로 하는 KJV는 정식으로 본문에 이 문단이 있으며,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 본문에서도 상황은 TR과 같다. 이 PA가 요한복음의 원문이 아니었음에 대하여는 본문비평 학자들 간에 압도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외적 그리고 내적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⁵¹⁾ 이처럼 PA는 후기 비잔틴 계열 사본들에서 발견되는데, 비잔틴 계열 사본증거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있는 학자인 윌리스(D. Wallace) 같은 이도 PA는 언어의 측면에서나 문장론의 측면에서나 모두 요한복음의 원문이 아니었음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⁵²⁾ 그래서 어만(Ehrman)은 이 이야기의 역사적 그

50)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73-174;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1), 298, 302;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74 등을 참조하라.

51) 이 주장을 요약하면, (1) 초기의 중요한 사본들을 위시하여 다양한 그리스어 사본들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고대 번역본들에도 이 문단이 빠져 있다; (2) 12세기까지 나온 어떤 그리스어 주석에도 이 문단이 논의되지 않았고, 초기 서방교회 교부들(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키프리안 등)은 이 문단을 인용한 적이 없으며, 동방교회 교부들도 10세기까지 인용한 교부가 없다; (3) 이 문단은 주로 서방계열 사본 및 번역본 그리고 후기 비잔틴계열 사본들에서 발견된다; (4) 이 문단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에도 그 확실성을 의심하고 있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그 위치가 다양하다(요 7:52; 눅 21:38; 요 7:36; 요 7:44; 요 21:25 등); (5) 이 문단 자체 내에 이문들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언어가 요한복음보다는 공관복음서들, 특히 누가복음과 흡사한 점이 더 많다 등이다. G. R. Beasley-Murray, *John*, WBC (Dallas: Word Books, Publishers, 1987), 143; 메츠거,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81-183; R. L. Omanson,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183-184 등을 보라.

52) D. B. Wallace, “Reconsidering ‘The Story of Jesus and the Adulteress Reconsidered’,” *NTS* 39

리고 문학적 문제만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서, 최근에 발견된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주석가 소경 디두모(Didymus the Blind)의 성경주석이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고 주장한다.⁵³⁾ 분명한 것은 PA가 요한복음서의 원문은 아니었으나 사본이 전달되는 역사 속에서 언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현재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7:53-8:11을 이 자리에 위치시킨 사본증거들이 가장 많은 중요한 이유는 문맥에 맞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53-8:11에 대한 한글 번역 성서 번역자들의 취급은 TR이나 KJV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2. 어구 첨가: 요한복음 3:13

요한복음 3:13에서 KJV의 번역자들은 “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라고 번역하여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을 TR의 본문(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을 반영한다. 이 지점에서 다수 본문과 동방교회 전통본문은 TR의 본문과 동일하다. 이 어구에 대한 사본적 지지가 강하지는 않은데, 이는 이 어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본들에서는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⁴⁾ 『개역개정』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을 각주에서만 “어떤 사본에, 곧 하늘에 있는”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표준개정』도 『개역개정』과 흡사한 듯한데, 실수로 13절이 아닌 14절에 각주가 달려 있다. 『공동개정』에는 본문에도 각주에도 이 부분에 대한 TR이나 KJV의 흔적이 없다.

5.3. 상이한 어구와 구두점의 문제

1) 요한복음 1:18

『개역개정』의 요한복음 1:18(TR-θεὸν οὐδεὶς ἑώρακεν πώποτε· ὁ μονογενὴς υἱός, ὁ ὢν εἰς τὸν κόλπον τοῦ πατρὸς ἐκεῖνος ἐξηγήσατο 대 GNT⁴-θεὸν οὐδεὶς ἑώρακεν πώποτε· μονογενὴς θεός ὁ ὢν εἰς τὸν κόλπον τοῦ πατρὸς ἐκεῖνος ἐξηγήσατο.)은 GNT⁴(μονογενὴς θεός)의 본문과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1993), 290-296.

53) 그는 4세기경에 실제로 (i) 파피아스(Papias)와 디다스칼리아(Didascalia)의 저자에게 알려진 PA; (ii) 신약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서(The Gospel to the Hebrews)에 보존되고 디두모의 전도서주석에서 다시 언급된 PA; (iii)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형태(conflation)이며 여러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대중적인 PA 등 모두 세 종류의 PA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B. D. Ehrman, “Jesus and the Adulteress,” *NTS* 34 (1988), 24-44.

54)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AB (New York: Doubleday, 1966), 133을 보라

없으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번역되었는데, 동일한 구절의 밑줄 친 부분에서 KJV는 TR(μονογενής υἱός)을 따라서 “the only begotten Son”(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번역되었다. 『개역개정』의 각주에는 “어떤 사본에, 독생자가”라고 쓰여 있다. 이 지점에서 브라운(Brown)이 지적한 대로 세 가지 이문([ὁ] μονογενής θεός=God the only Son, μονογενής υἱός=the Son, the only one, μονογενής=the only Son)이 존재하는데, 그는 첫 번째 가능성을 취하고 있으나,⁵⁵⁾ Haenchen같은 이는 두 번째 가능성을 선호한다.⁵⁶⁾ 사본적인 상황은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팽팽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요한복음 1:18에서 『개역개정』은 TR과 KJV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요한복음 1:3-4와 요한복음 4:35-36의 구두점

신약성서의 원문에는 구두점도 띄어쓰기도 없었지만, 후대의 필사자들이나 편집자들에 의하여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생겨났다.⁵⁷⁾ 여기에 제시된 요한복음의 두 구절의 번역상의 차이는 저본에 나타나는 구두점의 문제에 기인한다. 우선, 요한복음 1:3-4의 구두점에 관한 사본적 상황, 주석가들의 주장, 요한복음 1:1-5에 대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⁵⁸⁾ NTG²⁷⁾나 GNT⁴⁾의 요한복음 1:3-4의 구두점은 올바른 판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구두점을 따라 번역된 『공동개정』이나 『표준개정』의 번역은 설득력이 없고, TR이나 KJV의 구두점을 따랐던 NTG 26판 이전의 저본에 입각한 번역인 『개역개정』의 번역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구두점과 관련된 두 번째 예는 요한복음 4:35-36이다. TR이나 GNT⁴⁾나 여기서 절 나누기는 동일하다: 35 οὐχ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Ἔτι τετράμηνον ἔστιν καὶ ὁ θερισμὸς ἔρχεται ἰδοὺ λέγω ὑμῖν ἐπάρατε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ὑμῶν καὶ θεάσασθε τὰς χώρας ὅτι λευκαὶ εἰσιν πρὸς θερισμόν ἤδη 36 καὶ ὁ θερίζων μισθὸν λαμβάνει καὶ συνάγει καρπὸν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ἵνα καὶ ὁ σπεύρων ὁμοῦ χαίρῃ καὶ ὁ θερίζων. 그러나 이 밑줄 친 부분이 KJV에서는 “... for they are already white for harvest! 36 And he who reaps receives wages, ...”라고 번역된 반면, 『개역개정』에는 “...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

55)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17을 보라

56) E. Haenchen, *John I*,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121을 참조하라.

57) 사본에 구두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주후 6-7세기의 일이다: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6-27을 참조하라.

58) 요한복음 1:3-4의 구두점 때문에 일어나는 번역과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장동수, “원문의 구두점 때문에 달라지는 성경 해석에 대한 소고,” *The Canon and Culture* 3 (2008, 봄), 275-296을 보라.

고…”라고 번역되었다. 이는 원문에서는 35절 끝에 나오는 ἤδη(already, 이미)라는 어휘를 어디에다 붙이느냐의 문제이며 동시에 GNT⁴ 편집자들처럼 ἤδη 앞에 마침표를 찍느냐 아니면 다수 본문전송의 편집자들처럼 TR을 따라 ἤδη 뒤에 찍느냐의 구두점의 문제이다.

『공동개정』의 경우 35절과 36절에 각각 “이미”라는 어휘를 두어 번역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표준개정』의 번역자들은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36 거두는 이는 샅을 받고…”라고 번역함으로써 TR이나 다수 본문, 그리고 동방교회의 전통본문의 구두점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영어 번역이나 주석가들도 둘로 나뉜다. RSV(35 … and see how the fields are already white for harvest. 36 He who reaps receives wages, …)의 번역자들이나 모리스(Morris)나⁵⁹⁾ 헨첸(Haenchen) 같은 학자는⁶⁰⁾ TR의 구두점을 따른 KJV처럼 번역하였으나 NRS(35 … and see how the fields are ripe for harvesting. 36 The reaper is already receiving wages …)의 번역자들이나 브라운(Brown) 같은 학자는⁶¹⁾ GNT⁴의 구두점을 따라 번역하였다. 이 점에서 한글의 대표적인 번역 성서들도 둘로 갈라진 상태이다. 요한복음 4:35-36의 구두점 문제에서 『개역개정』은 GNT를 따라 TR을 벗어났으나, 『표준개정』은 GNT가 아니라 TR을 따라 갔고, 『공동개정』은 두 가지를 합해놓은 형국이다.

6. 결론

본고는 신약성서 번역자들을 위하여 기존의 한글 번역 성서에 나타난 저본의 영향들 가운데, TR과 KJV의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낼 수 있겠다.

첫째로, 본고에서 살펴본 세 종류의 한글 성서, 즉 『개역개정』, 『표준개정』, 그리고 『공동개정』은 대부분 TR이나 KJV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번역들은 번역 당시에도 또한 지금도 가장 학문적이며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GNT를 저본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이어지는 본문적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번역 성서들에는 GNT가 TR을 벗어난 만큼이나 TR이나 KJV의 영향을 벗어났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로, TR을 맹신해서도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TR이나 KJV의

59) L.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276, 280.

60) E. Haenchen, *John 1*, 209, 225 등을 참조하라.

61)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168, 174.

영향력이 대단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국내외에서 다수 본문과 TR 그리고 KJV로의 맹신적인 복원 운동은 분명히 바르지 않은 것이 사실임이 본고의 복음서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셋째로, GNT를 너무 맹신하면 현대판 TR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보기 가운데 몇몇 곳에서 GNT가 TR의 본문으로 돌아가거나 TR과 본문을 공유하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TR이나 다수 본문 전승에 많은 것들이 끼어들었고 필사자들이 손을 보았기 때문에 원문 구성에 고려하기를 꺼려하여 TR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거의 고려하지 않는 편집 경향을 띄고 있는, GNT도 자칫하면 현대판 TR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로, 대다수 사본 전승도 원문 재건에 기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판 브뤼켄(J. van Bruggen)이 말했듯이, 좁게는 TR, 혹은 다수 본문 전승, 교회 본문, 비잔틴 본문, 코이네 본문 등으로 일컬어지는 본문 전승도 신약성서 원문을 구축하는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GNT가 TR과 다수 본문 전승으로 돌아간 예인 마가복음 6:22와 누가복음 10:42와 요한복음 1:3-4와 4:35-36의 구두점, 어찌면 마태복음 21:29-31에서도 TR과 다수 본문이 원문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어>(Keywords)

Textus Receptus, KJV, Four Gospels, Korean Bibles, Absence of Verse(s), Addition, Omission.

텍스투스 레셉투스, 제임스왕역, 사복음서, 한글 성서들, 절 없음, 첨가, 생략.

* 참고문헌(References)

- Aland, B., Aland, K., Karavidopoulos, J., Martini, C. M., and Metzger, B. M.,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Hodges, Z. C., and Farstad, A. 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92.
- H KAINH ΔΙΑΘΗΚΗ*,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1985.
- H KAINH ΔΙΑΘΗΚΗ*, ΑΘΗΝΑΙ: ΑΔΕΛΦΟΤΗΣ ΘΕΟΛΟΓΩΝ Ο ΣΩΤΗΡ, 2004.
- Westcott, B. F., and Hort, F. J. A.,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Vol. 1, New York: Macmillan, 1929.
- Tischendorf, C., *Novum Testamentum Graece*, Vol. 1: *Text*, 8th ed., Leipzig: Giesecke & Devrient, 1872.
- 메츠거, 브루스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2판,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Fee, G. D., 『신약성경 해석 방법론』, 장동수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3.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II: 번역 반포와 권서 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박창환,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정체,” 『성경원문연구』 1 (1997년 8월), 11-33.
- 장동수,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5.
- 장동수, “원문의 구두점 때문에 달라지는 성경해석에 대한 소고,” *The Canon and Culture* 3 (2008, 봄), 275-296.
-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왜관: 분도출판사, 2003.
- Aland, K. and Aland, B.,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E. F. Rhodes, tra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87.
- Aland, B., and Wachtel, K., “The Greek Minuscule Manuscripts of the New Testament,”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B. D. Ehrman and M. W. Holmes, eds., Grand Rapids: Eerdmans, 1995, 43-60.
- Beasley-Murray, G. R., *John*, WBC, Dallas: Word Books, Publishers, 1987.
- Blomberg, C. L., *Matthew*, NAC,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 Brooks, J. A., *Mark*, NAC, Nashville: Broadman Press, 1991.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AB, New York: Doubleday,

1966.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XIII-XXI*, AB, New York: Doubleday, 1970.

Bultmann, R., *The Gospel of John*, G. R. Beasley-Murray, tr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Cranfield, C. E. B.,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CGT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Ehrman, B. D., "Jesus and the Adulteress," *NTS* 34 (1988), 24-44.

Evans, C. A., *Mark 8:27-16:20*, WBC, Dallas: Word, 2001.

Farmer, W. R., *The Last Twelve Verses of Ma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Fee, G. D., "The Majority Text and the Original Text of the New Testament," E. J. Epp and G. D. Fee, eds., *Studies in the Theory and Method of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93), 183-208.

Fitzmyer, J.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I-IX*, AB, New York: Doubleday, 1970.

Fitzmyer, J.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 New York: Doubleday, 1985.

Fitzmyer, J. A., "'Peace upon Earth among Men of His Good Will' (Lk 2:14)", J. A. Fitzmyer, ed., *The Semitic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101-104.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Gregory, C. R., *The Canon and Text of the New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24.

Guelich, R. A., *Mark 1:1-8:26*, WBC, Dallas: Word, 1989.

Hagner, D. A., *Matthew 1-13*, WBC, Dallas: Word Books, 1993.

Homes, M. W., ed., *The Apostolic Fathers: Greek Texts and English Translations of Their Writings*. J. B. Lightfoot and J. R. Harmer, tran., Grand Rapids: Baker, 1992.

Kilpatrick, G. D., "Luke 24:42-43." *Novum Testamentum* 28 (1986), 306-308.

Metzger, B. M.,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3rd. e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Michaels, J. R., "The Parable of the Regretful Son," *HTR* 61 (1968), 15-26.

- Morris, L.,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1.
- Nolland, J., *Luke 1-9:20*, WBC, Dallas: Word Books, 1989.
- Omanson, R. L., *A Textu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Richardson, P., *Herod: King of the Jews and Friend of the Romans*, Edinburgh: T&T Clark, 1996.
- Sturz, H. A., *The Byzantine Text Type an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Nashville: Thomas Nelson, 1984.
- Taylor, V.,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London: Macmillan, 1952.
- Van Bruggen, J., "The Majority Text: Why not Reconsider Its Exile?" S. McKendrick and O. O'Sullivan, eds., *The Bible As Book: The Transmission of the Greek Text*, London: The British Library, 2003, 147-153.
- Vogt, E. S. J., "Peace among Men of God's Good Pleasure Lk. 2:14", K. Stendahl, ed., *The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New York: Crossroad 1992, 114-117.
- Wallace, D. B., "Reconsidering 'The Story of Jesus and the Adulteress Reconsidered'", *NTS* 39 (1993), 290-296.
- Westcott, B. F., and Hort, F. J. A.,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82; reprint,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8.

<Abstract>

***Textus Receptus* and Translating New Testament into Korean:
A Case of Gospels**

Prof. Dong-Soo Chang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observe the degree of TR and/or KJV influence on major Korean translations, focusing on the selected verses in the four Gospels. The observation was centered in looking at their influences on no verses, deletion and insertion, different expressions, and the punctuations of TR and GNT. Comparison was carried out mostly between TR and GNT, but WHO, Tischendorf⁸ NT, Majority Text and Greek Orthodox NT were also conferred. As the result, there were some findings and suggestions to be made. Som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major Korean translations were not influenced by TR or KJV at most of the points. Second, TR should not be followed dogmatically nor ignored completely. At the same time, GNT is not the original text and should not be perceived as such, thus GNT should not be followed dogmatically lest making another TR. Thirdly, the voice of Majority Text and Greek Orthodox NT including TR may be allowed to contribute to reconstructing the original text of NT.